



해외보험리포트

싱가포르

강윤지, 김가현

Executive Summary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중계무역 기반의 개방경제,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교역 허브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진입 장벽이 낮아 외국 자본 유입도 활발히 일어남. 최근에는 수출 및 역외무역 목표를 밝히며 교역 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 전환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보험산업은 1966년 제정된 보험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후 통화감독청(MAS)이 하위 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2020년 위험기반 자본(RBC) 2 도입을 통해 기존 RBC 체계를 고도화하였음. 최근에는 금융 허브로서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을 시행하여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율 범위를 넓히는 등 신종 금융 리스크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2023년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침투도는 9.2%, 보험밀도는 7,799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각각 69.6%,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손해보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생명보험시장은 일사납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주요 판매채널로는 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손해보험시장은 202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재보험 시장의 발달로 역외 시장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또한 두 시장 모두 상위 10위권 내 진입한 국내 보험회사가 각각 3개, 1개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편임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도시국가 형태의 싱가포르를 세계적 항만·공항과 개방형 제도를 축으로 한 교역 허브 기능을 통해 생산, 자금, 유통이 집중되는 아시아의 운영 거점으로 기능함¹⁾
 - 정식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9세기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었다가 1965년 독립 공화국으로 정식 수립됨
 - 싱가포르는 본섬과 60여 개의 소형 도서로 구성된 도시국가(City state)로, 하나의 도시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책의 계획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주거·교통·토지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정합적으로 설계됨
 - 대표적인 예로 공공주택(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 정책을 들 수 있는데, 동 정책은 토지 및 공간 계획, 교통 수요 관리와 함께 하나의 체계로 추진되어 상업·교육·교통이 복합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단지를 빠르게 형성했으며,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인도,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 중계무역 기반의 개방경제와 항만·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교역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Trade 2030'을 통해 수출 및 역외무역 목표를 제시하며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Trade 2030'은 싱가포르 정부의 "Singapore Economy 2030" 비전 중 무역 축 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 2030년까지 수출을 최소 1조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하고 역외무역(Offshore trade)을 미화 2조 달러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Singapore FinTech Festival), 아시아 안보회의(Shangri-La Dialogue)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 및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무역뿐 아니라 다각적인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1 싱가포르 달러(SGD)의 환율은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10월) 기준으로 약 0.77달러(USD), 1,095원(KRW)임

1) KOTRA(2025), "국가지역정보-싱가포르"

〈표 1〉 싱가포르 주요 국가 지표

항목	싱가포르 지표	한국 지표	항목	싱가포르 지표	한국 지표
면적	735.7km ²	100,363km ²	인구	약 603만 명	약 5,208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453만 명	약 3,520만 명	고령화 비중	약 13.7%	약 19.2%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32%	경제성장률	4.4%	2.0%
GDP	약 5,470억 달러	약 1조 8,700억 달러	1인당 GDP	약 15만 달러	약 6만 달러
기대수명(남)	81.2세	80.6세	기대수명(여)	85.6세	86.4세

주: 각 지표는 2024년 기준임

자료: KOTRA(2025), “국가지역정보-싱가포르”;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24), “Population Trends 2024”;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24), “Complete Life Tables for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2023-2024”; 한국 지표는 통계청 KOSIS에서 각 항목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 일관된 정책 기조로 시장의 변동 리스크가 낮다는 점, 외국인 투자 유치의 진입장벽이 낮아 설립·운영이 간편하다는 점, 세제·행정 인센티브가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외국 자본의 싱가포르 진출이 활발히 일어남

- 1959년 자치정부 수립 이후 보수 성향의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일관되게 집권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됨
 - 2025년 5월 선거에서도 97석 중 87석을 차지하며 장기 집권을 재확인함
- 2025년 기준,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을 중심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또한, 법인 설립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어 영업일 기준 평균 3일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 1 싱가포르 달러, 현지 거주 이사 최소 1인 등 설립 요건도 최소화되어 있음

○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저지대 섬나라인 싱가포르는 연안 보호 및 고지대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태양광 에너지 부문 개혁을 강조하는 Green Plan 2030을 채택하는 등 친환경 관련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 국토 면적의 약 30%가 해발 5m 미만인 싱가포르는 2020년 국가 물 관리기관(Public Utilities Board, Singapore’s National Water Agency)을 국가 연안 보호 기관으로 지정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도록 하고, 연안 내수 홍수 대응 기금(CFPF)을 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조성함
 - 2025년 예산에서 추가로 50억 싱가포르 달러가 증액되어 관련 사업 및 연구 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 또한 2011년부터 새로 매립하거나 개발하는 부지는 최저 기준을 기존 해발 3m에서 4m로 상향하고, 항만·공항 등의 핵심인프라는 최소 5m 이상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하며 고지대화를 병행하고 있음

2. 경제

-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직후 경제적 불안정성과 높은 실업률, 빈곤 문제에 직면했으나, 고용 창출과 산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제조업 전환을 병행 추진하기 시작함
 - 영국군 철수와 말레이시아와의 분리로 시장 및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고 빈곤이 심화되어, 단기간에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복원할 현금 흐름 및 수출 중심 전략이 필요했음
 - 1961년 경제개발청(EDB)을 설치해 투자·입지·행정 지원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1967년 경제확대우대법(EEIA)으로 선도 산업의 법인세 면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다국적 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함
 - 선도 지위(Pioneer certificate) 및 감면 신청은 사업계획, 투자, 고용 약속을 사전에 평가받는 구조, 승인 활동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FDI 유치를 가속화 함
 - 또한 공장용지, 도로, 근로자 주택,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노동·노사 규범을 동시에 정비해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해 제조품의 통관 및 출하 속도를 대폭 높이는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

〈표 2〉 싱가포르 주요 경제 정책 변천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1960년대	1965년 독립, 산업화 정책 경제개발청(EDB) 설립, 경제확대우대법(EEIA) 제정	• 1961년 EDB 설립으로 투자, 입지, 인력 유치의 단일창구를 만들고, 1967년 EEIA로 선도 산업의 법인세 면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제조업 전환을 가속화 함
1970년대	제조업 고도화 직업·산업훈련위원회(VITB) 설립	• 1979년 VITB를 설립해 제조·서비스 전반 숙련공 공급 확대, 고용기회 증가에 대응함
1980년대	경기침체 다각화: 금융·물류·서비스 허브 지향	•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가 1986년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 처방을 제시함 • 금융·물류·관광 등 현대 서비스업을 전략 축으로 키우고 제조는 전자·정밀 등 기술집약으로 고도화하고자 함 • 항공 및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진출 및 역외활동을 권고함
1990년대	정보화 및 세계화 금융부문 단계적 개방	• 1992년 IT2000 마스터플랜 발표로 디지털 인프라 및 전자정부 청사진을 제시함 • 1999년 은행부문 자유화 패키지로 외은 접근 확대 및 경쟁을 촉진함
2000년대	신산업 육성 및 R&D 중시	• 2000년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BMS) 이니셔티브 가동으로 바이오폴리스 등 R&D·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함 • 정밀제조·특수화학과 더불어 고부가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함

〈표 2〉 계속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2010년대	디지털 전환 생태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스마트네이션이 출범함 • 2015년 SkillsFuture 제도를 도입함 • 산업전환지도를 수립함
2020년~현재	팬데믹 회복 Singapore Economy 2030 Green Plan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 Enterprise, Manufacturing, Services로 무역 규모 확대, 국내기업 스케일 확장, 제조 부가가치 50% 확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함 • 탄소세 상향 등 녹색전환 정책과 결합해 팬데믹 이후 회복 및 재설계를 병행함

자료: KOTRA(2025), “국가지역정보-싱가포르”를 기초로 작성함

○ 1980년대에 들어서며 경기침체를 겪은 싱가포르는 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고도화, 역외 산업단지를 통한 글로벌 분업, 금융 자유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발전하게 됨

- 저임금·노동집약형을 벗어나기 위해 임금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임금 교정 정책 도입 이후 비용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외 수요가 하락세를 보이며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기에 들어서게 됨
- 이에 정부는 1986년 경제위원회(EC) 보고서 “The Singapore Economy: New Directions”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비용·세제 재조정, 고부가 서비스 및 첨단 제조로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 항공 및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
 - 창이(Changi) 공항이 개장하면서 여객·화물 허브 기능을 확장했고(1989년 여객 1,413만 명), 싱가포르항만청(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처리 속도를 높임
- 1990년대에는 국내 임금 및 토지 비용이 상승하고 내수 규모가 작다는 문제를 해결·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제조 부문을 역외 거점으로 분산하는 등 세계화를 추진함
 - 예를 들어 1994년 조성된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산업단지는 싱가포르의 산업 개발 모델을 중국에 이식하는 정부 간(G2G) 프로젝트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고 규모를 확장하며 중국 내 FDI 거점 역할을 수행함²⁾
- 또한, 1999년부터 외국은행의 소매금융(리테일) 활동을 넓혀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금융 자유화 정책을 통해 금융 허브의 완성도를 높임
 - 금융 자유화 정책은 일부 외국은행에 지점·ATM·리테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면허(Qualifying Full Bank; QFB)를 부여해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로컬 은행은 경쟁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리스크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둠

²⁾ Cheryl Sim(2015. 2. 17.),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 이후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을 채택함
 - 2014년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전자정부, 디지털 ID, 스마트 모빌리티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공공·민간 전 영역에서 동시에 추진함
 - 2015년에는 전 생애 역량 개발을 국가 운동으로 제도화(SkillsFuture)하여 개인에게 성인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에는 전환·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대하고자 함
 - 이 외에도 저임금 직종에 숙련 연동 임금 상승 경로를 의무화하는 점진임금제(Progressive Wage Model; PWM), 요건이 충족된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 제공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재고용 제도(Retirement and Re-employment Act; RRA) 등 사회적 포용 정책을 다방면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22년 Singapore Economy 2030을 성장 나침반으로 채택해 교역·제조·서비스·기업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디지털 전환과 고급 인재 확충을 병행하고자 함
 - Singapore Economy 2030은 무역(Trade), 제조(Manufacturing), 서비스(Services), 기업(Enterprise) 4대 축으로 수출 1조 싱가포르 달러, 역외무역 2조 달러, 제조 부가가치 50% 확대,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성장 비전임
 - 또한 국가 지속 가능성 전략으로 Green Plan 2030을 채택해 탄소 감축, 순환 경제, EV 전환 등의 목표를 제시함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싱가포르의 보험산업은 1966년 제정된 보험법(Insurance Act)을 축으로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등 보험사업자의 인가, 승인 및 등록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이 하위 규정을 통해 자본·평가·공시 등 전 영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지속 보완함
 - 싱가포르 보험법은 보험계약의 규율을 목적으로 총 4장, 1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을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으로 나누어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보험법 외에도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특정 유형의 보험을 규제하는 법률, 영국의 보험계약법(1867), 제3자 보호법(1930) 등 영국 법률도 수용되고 있음
 - 금융자문법(Financial Advisers Act; FAA)은 생명보험(재보험 제외)의 모집과 자문행위를 별도로 규율하여, 자문 적합성, 고지, 보수 체계를 표준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 손해보험의 보험대리인 자격 및 등록은 일반보험협회(GIA) 체계로 관리되며, 협회 내규가 회원사의 영업행위를 보완하고 규율함
- 2004년에 위험기반자본(RBC) 규정을 도입한 뒤 2020년 RBC 2 체계로 고도화되었으며, 2024년 개정에서는 위험 측정·자본 완충·공시 기준을 최신 국제 관행에 맞춰 세부 보완함
 - RBC 2는 자산, 부채, 시장, 신용 등 다양한 위험을 표준 모듈로 계량해 표준 자기자본 요건(PCR) 및 최저 자기자본 요건(MCR)을 산출하고, 자기자본 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
 - 장기 부채와 현금 흐름이 일치하는 자산에는 매칭 조정(MA), 추가 급락기엔 카운터사이클 조정(CCA) 등 변동성 완충 장치를 도입해 자본 요건의 실효성을 높임
 - 2024년 개정은 신용스프레드 위험 측정을 보정하고, 자본 및 리스크 공시를 확대해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내부 신용등급을 신용스프레드 위험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은 외부 등급이 부족한 채권 및 대출에 대해 리스크 계량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표 3〉 싱가포르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시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용
1966년	보험법(Insurance Act) 제정	•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에 적용된 감독제도를 구축함
1971년	싱가포르통화감독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시행	•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인 MAS를 설립함 • 2013년 개정을 통해 파산 관리 권한을 강화함
1999년	보험중개업법(Insurance Intermediaries Act) 제정	• 보험중개인의 등록, 보험중개인과 보험회사의 계약 등을 규정함
2000년	MAS의 보험산업 자유화 프로그램 발표	• 외국 보험회사의 싱가포르 시장 진입을 허용함 • 로컬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합계 상한(49%)을 폐지함
2001년	금융자문법(Financial Advisers Act) 제정	• 금융자문(보험 권유·자문 포함)의 라이선스, 역량, 보고 요건 규율함
2004년	위험기반 재무건전성 제도(RBC 1) 도입 결정	• 금융 자문, 보험계리사 자격 측정, 운영, 역량 및 보고 요건 제고를 관장함
2005년	예금보험법(Deposit Insurance Act) 제정	• 싱가포르 예금보험공사(SDIC) 설립, 예금보험제도(DI)의 관리 및 집행 기관으로 지정됨
2011년	보험계약자보호제도(Policy Owners' Protection Scheme) 시행	•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한도까지 보상하는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PPF)에 관한 기존 법률을 대체하며 보험계약자 보상제도를 강화함 • PPF가 MAS에서 SDIC로 이관되어, SDIC가 예금보험(DI)과 PPF 모두의 기금 관리 및 보상 집행을 맡게 됨
2016년	보험업법 수정안 및 금융자문업법 수정안 통과	• 금융자문업 규제를 강화함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 인슈어테크를 포함한 핀테크 분야를 육성하고 있음
2020년~2021년	RBC 2 시행 및 세부 보완	• RBC 1 대비 시장·신용·운영 리스크 반영을 세분화하고, Matching Adjustment(MA) 도입 등 리스크 민감도와 감독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됨
2022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시행	• MAS Act에 포함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금융 분쟁, 회수 및 해결 프레임워크, 금융기관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이 이전됨 •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킴
2024년	FSMA(Amendment) 2023-COSMIC	•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금융 확산과 같은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COSMIC이라는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됨 • 해당 플랫폼은 싱가포르의 6대 주요 은행에서 이용하기 시작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1971년에 설립된 통화감독청(MAS)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은행·증권·보험을 포괄하는 통합 감독기관으로서 재무 건전성, 영업 행위, 시장 행동을 감독함
 - MAS 규제 및 감독 대상에는 (재)보험회사, 캡티브(전속보험사), 금융자문업자,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이 포함됨
 - MAS는 보험법 외에도 규정(Regulation), 통지(Notice), 성명(Statement) 등을 통해 보험업 관련 각종 사항을 감독하고 있음

가. 싱가포르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업권별로 분산되어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강화하고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22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이하 'FSMA')을 시행하였고, 2024년 금융기관이 고위험(Red-flag)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COSMIC)을 도입함
 - FSMA의 단계적 시행과 정보공유 플랫폼 도입, MAS의 업무금지 명령(Prohibition order) 권한 확대로 AML/CFT³⁾ 및 테크리스크 관련 제재 수단을 통합·강화하여 최근 대형 자금세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함
 - 1MDB 사건 연루 위반으로 2016년 은행 BSI, Falcon에 대한 퇴출 및 과태료 조치가 있었고, 2023년에는 대형 자금세탁 사건으로 인해 2025년 9개 기관에 총 2,745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제재가 부과됨⁴⁾
 - 중앙 플랫폼 COSMIC은 싱가포르의 6대 주요 은행에서 이용하기 시작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20년 환경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보험회사의 거버넌스·전략·리스크관리·공시 기준을 제시했고, 2023년에는 '전환 계획(Transition Planning)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며 이행 계획 요구를 구체화함
 - 환경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전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리스크가 언더라이팅, 투자, 재보험 전반에 반영되도록 요구함

³⁾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의 약자로, 자금세탁(AML)과 테러자금조달 방지(CFT)를 뜻함

⁴⁾ Reuters(2016. 10. 11.), "Singapore shuts Falcon bank unit, fines DBS and UBS over 1MDB"; Reuters(2025. 7. 4.), "Singapore monetary authority penalises 9 banks, institutions for 2023 money laundering case"

- 2023년 전환 계획안은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별로 영업 활동에 맞춘 전환 계획 의무를 제시하며 단순 넷제로(Net Zero) 선언이 아닌, 이사회 및 경영진 책임, 사업 전략 반영, 내부 KPI까지 연결하는 실행 계획안임
 - 보험회사의 경우, 언더라이팅과 투자 활동이 직접적인 적용 범위에 포함됨
- 2024년에는 공정거래(Fair Dealing) 지침의 적용 범위를 전 금융기관, 전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고객 성과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금융 산업 분쟁 해결센터(Financial Industry Disputes Resolution Centre, 이하 'FIDReC') 분쟁조정 한도도 상향되어 소비자 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됨
 - 해당 지침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것을 이사회 감독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요구함
- 또한 구조화 상품, 인프라 투자에 대한 RBC 2 자본처리 개선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회부하여, 장기자산 및 실물투자에 우호적인 위험가중 및 인정기준을 검토 중임
 - 구조화 상품은 투과(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해 기초자산의 신용도를 자본 요구에 반영하고, 중복 산정을 줄이는 표준 접근 세분화 및 보고 요건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적격 인프라(Eligible Infrastructure)의 정의를 도입, 현금 흐름 매칭 조정(MA) 인정범위를 넓혀 우호적인 자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적격 인프라는 규제 및 계약에 따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장기이며 예측 가능한 위험-수익 특성을 갖춘 인프라 자산을 의미함
 - 금리 및 스프레드 스트레스와 헤지 효과 인정기준을 정합화하고, 영향 평가와 단계적 적용을 병행하여 녹색 자산, 인프라 자산 등 실물 투자 유도와 건전성 확보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싱가포르에서 보험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회사는 사업 계획·자본·거버넌스 체계를 충족해 MAS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유형별 허용 상품과 영업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
 - 면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등의 사업 유형과 범위에 따라 구분됨
 - 생명보험(재보험 제외)을 모집하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은 금융자문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반면, 손해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인은 MAS에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보험협회(GIA)에 등록해야 함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이 허용되므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생·손보 겸영회사⁵⁾ (재보험회사 포함)가 존재함
 - 생명보험회사의 영업 범위는 생명보험 및 5년 이상의 장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업임
- 디지털 보험회사 전용 면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자본, RBC 등 핵심 건전성 요건은 동일 하되, 디지털 영업 방식의 경우 추가적인 판매·IT·시장 행동 규제가 더해져 소비자보호와 운영 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온라인 무자문 판매 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보다 주의환기 문구, 자기적합성 확인, 핵심설명서 등 UI/UX 기반의 보호장치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음

다. 보험회사 최소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 최소 납입 자본금은 보험회사 유형 및 보험 종목에 따라 상이하하며, RBC 제도에 따라 위험에 비례한 추가 자본이 요구됨
 -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1,000만 싱가포르 달러, 재보험회사의 경우 2,500만 싱가포르 달러이고, 단기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또는 변액보험 등 특정 보험 종목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5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일반적인 보험회사보다 낮은 수준임
 -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 없이 해외에서 싱가포르 내 보험자에게 재보험을 제공하는 인가(Authorised) 재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납입자본 요건은 없는 대신 재보험 예치금 의무가 적용되어 각 사업군마다 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MAS에 예치해야 함
 - 각 보험회사는 최소 10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과 12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MAS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감독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싱가포르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150~250%의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⁶⁾

라. 소비자보호 규제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해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기구인 FIDRe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⁵⁾ Composite Insurer를 의미함

⁶⁾ THE STRAITS TIMES(2024. 11. 4.), "Singapore life insurers have healthy capital buffers to withstand shocks"; AIA Singapore(2025. 4.), "COMPANY FACTSHEET"; Prudential Singapore(2023), "Annual Report"

- FIDReC는 2005년 은행업계의 소비자 중재 부서와 보험업계의 보험 분쟁 해결 기구가 합병하여 설립됨
- 보험회사는 제기된 불만에 대해 30일 이내 해결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에 만족하지 않는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최종 답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FIDRe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됨
 - 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없으며, 중재로 지급될 수 있는 1건당 상한액은 기존 1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15만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됨
- 보험회사가 파산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SDIC)가 운영하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PPF)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합계 최대 50만 싱가포르 달러, 해지환급금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보장되며, 손해보험의 경우 유효 청구액 전액이 보장됨
 -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의무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총당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별도 신청이나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 동 제도가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회원 보험회사가 발행한 싱가포르 국내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이외에도 불완전 판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Fair Dealing) 지침, 단순 필수 보장 상품을 설계사 없이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구매보험(DPI) 제도, 보험 판매 시 필수 절차를 규정하는 자문·고지 의무 등 다양한 시장 행동 규율을 토대로 소비자보호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자본은 일반적인 보험회사, 외국 보험 인수단(Syndicate), 인가(Authorised) 재보험회사, 승인(Approved) MAT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싱가포르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현지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한도도 없음
 - 일반적인 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인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를 설립하며 원보험업 및 재보험업을 선택하여 영위할 수 있음
 - 외국 보험 인수단은 싱가포르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특수 외국 법인 형태이며, 회원사들은 물리적 실체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원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현재 로이즈(Lloyd's)는 싱가포르에 외국 보험 인수단(Lloyd's Asia service company)을 두고 있음
 - 인가 재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인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해외에서 싱가포르의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승인 MAT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인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해외에서 싱가포르의 MAT (해상, 항공, 운송)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징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싱가포르는 내부 한도 설정, RBC에 따른 자본 요구 중심으로 투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처럼 자산 군별 법정 상한을 촘촘히 두는 규제에 비해 전략 재량이 큼
 - 싱가포르의 보험회사는 국공채, 회사채,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가능 자산의 비율에 관한 법적 규제도 거의 없음
 - 다만 MAS의 통지(Notice 125(투자)와 Notice 126(ERM))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하는 투자 정책과 분산·ALM·유동성·스트레스 테스트가 요구되며, RBC 2에 따라 자산별 위험 계수로 자본 부담을 측정함
 - 통지(Notice 125)에 따라 회사가 어디(지역·국가)에, 어떤 산업(섹터)에, 누구(카운터파티)에게, 어느 통화로 투자할지 내부 한도를 투자 정책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사. 의무보험

- 싱가포르의 의무보험은 공공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WICA),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MI) 등 다양하며, 일부 공공책임, 전문직 배상책임 등 특정 업역에도 최소한의 가입 의무가 부과됨
 - HDB, 콘도 등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단이 공용부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한 공동주택 공공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건강보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싱가포르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약 159만 명(전체 인구 약 603만 명), 이 중 가사도우미가 약 31만 명임⁷⁾

7) 싱가포르 통상산업부(2025. 9. 22.), "Foreign workforce numbers"

〈표 4〉 싱가포르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건강보험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고용주는 Work Permit-S Pass 보유 외국인 근로자(가사도우미 포함)에 대해 연간 최소 6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의 의무 의료 보험을 가입·유지해야 함
외국인 가사도우미 상해보험	가사도우미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개인 상해를 보장함
장기요양보험	만 30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중증 장애 시 매달 현금 급여가 지급됨
퇴직연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 저축을 통한 적립금이 중앙적립기금(CPF)을 통해 운영되며, 은퇴 시 연금 형태로 전환되어 평생 소득을 지급함
산재보험	주된 업무가 육체노동인 근로자(Manual worker)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 가입함. 치료, 휴업, 영구장애, 사망을 무과실로 보상하며, 보상한도와 표준약관이 법정화되어 있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상업용 차량 및 이륜차에 대해 탑승객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포함한 무제한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임. 법정 최소 보장 금액은 일반 차량은 500만 싱가포르 달러, 상업용 차량 및 이륜차가 50만 싱가포르 달러임
공동주택 공공 책임보험	콘도 등 공동주택 관리단은 공공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공용 공간 사고 및 배상 위험에 대비함
전문직업 배상 책임보험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개업 허가 발급이 가능하고, 펀드 매니저는 자산 운용액의 1~3%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특정 직업군에 요구됨
EV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전기차 충전법(EVCA) 2022 및 2024년 하위 규정 개정에 따라, EV 충전사업자(EVCO)는 사고 1건당 최소 200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의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연간 청구 건수에 한도 제한을 둘 수 없으며, EVCO에게는 면허 의무가 적용됨
항만 소형선 책임보험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최소 20만 싱가포르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여객선의 경우 12명을 초과하는 승객 1인당 5,000 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이 상이함
선박 오염 책임보험	싱가포르는 벙커유 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CL)의 가입국으로, 이에 따라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은 싱가포르 영해에 진입하려면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임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아. 사회보장법

- 싱가포르의 사회보장 제도는 1953년 영국 식민 정부 시절 중앙적립기금법(Central provident Fund Act 1953)에 따라 처음 제정되었으며, 1955년부터 퇴직연금 적립을 위한 사회보장 저축 제도인 중앙적립기금(CPF)이 설립됨
- 건강 보장 체계는 2015년 MediShield Life로 전 국민의 건강을 평생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장기 요양은 2020년 CareShield Life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편성 및 지속 가능성이 강화됨

-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는 만 30세에 CareShield Life에 자동 가입되며, 이는 장기 요양 보험으로서 중증 장애가 발생해 일상생활동작 6개 중 3개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매달 급여가 지급됨
 - 소득 기준 보조와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됨
- 의료재정 '3Ms' 체계는 1984년 MediSave(의료 저축)로 시작해 1990년 MediShield(기본 의료보험), 1993년 MediFund(의료 공적부조)로 안전망을 완성하고, 2015년 MediShield Life로 평생 보장을 확립함
 - MediShield는 고액 의료비 위험을 분산하는 기본 보험으로 출발해 2015년 'Life'로 전환되며 전 국민 평생 의무 보장으로 확대됨

〈표 5〉 싱가포르 주요 사회보장법

시행 연도	법/제도	주요 내용
1953년	Central Provident Fun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 저축 제도인 CPF가 설립됨 • 이후 주거(1968), 의료(1984 MediSave) 등 기능이 점차 확대됨
1968년	Employment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계약, 근무 조건, 병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준거법
1975년	Workmen's Compens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산재보상 법률을 확립함
1984년	MediSave(의료 저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F에 의료 저축 기능을 도입하여 입원비, 수술비 등을 자기적립으로 충당하도록 함
1990년	MediShield(기본 의료보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병원비를 보장하는 저비용 기본 의료보험이 출범함
1993년	MediFund(의료 공적부조)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저축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병원비를 지원함
2008년	Work Injury Compensation Act(WICA)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상법의 명칭을 변경하여 노무자(Workmen)에서 근로자(Employee) 중심 무과실 보상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2014년	Employment, Parental Leave and Other Measures Act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 출산, 부모휴가 확대 등 여성·가족 친화적 방향으로 취업규정을 대폭 개정함
2015년	MediShield Life Scheme Act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평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함 • 기존의 MediShield를 대체하며 MediSave, MediFund와 함께 3Ms 체계를 구성함
2020년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중증장애) 보험을 도입함
	Work Injury Compensation Act(WICA) 전면 재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처리로 인한 지연, 보호 사각지대 문제, 보험회사 간 정보 비공유로 인한 위험기반 요율 왜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재보상 제도를 전면 재제정함

자료: AXCO(2025),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III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22위를 차지함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432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 인도(10위), 대만(14위), 홍콩(16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생명보험료의 1.0%를 차지하여 세계 18위 규모를 기록했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손해보험료의 0.3%를 차지하여 세계 25위 규모임
-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보험침투도는 9.2%이며, 보험밀도는 7,799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시장이 약 7.4%, 손해보험시장이 약 1.8%임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산업의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시장이 6,264달러, 손해보험시장이 1,536달러임

〈표 6〉 아시아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	시장규모 (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달러)	환율
중국	2위	10.1	723,664	3.9	508	7.1 USD/CNY
일본	4위	5.0	362,719	8.9	2,938	144.7 USD/JPY
한국	7위	2.6	185,917	11.0	3,603	1319.2 USD/KRW
인도	10위	1.9	135,958	3.7	95	82.8 USD/INR
대만	14위	1.1	78,077	10.3	3,307	31.2 USD/TWD
홍콩	16위	0.9	65,692	17.2	8,769	7.8 USD/HKD
싱가포르	22위	0.6	43,168	9.2	7,799	1.3 USD/SGD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비중이 각각 69.6%, 30.4%였으며, 최근 손해보험 비중이 증가함

-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은 70%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3년 69.6%로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비중이 30%를 넘어섬
- 2023년 전체 보험료는 431억 달러로 -3.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7〉 싱가포르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22,074 (70.5)	27,024 (73.6)	34,643 (76.6)	33,146 (74.4)	30,040 (69.6)
손해보험	9,226 (29.5)	9,683 (26.4)	10,572 (23.4)	11,408 (25.6)	13,128 (30.4)
전체	31,299	36,706	45,215	44,555	43,168
보험료 성장률	1.8	17.3	23.2	-1.5	-3.1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 호

○ 2025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115개의 (재)보험회사와 90개의 캡티브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아시아 최대 캡티브 보험시장 중 하나임

- 원보험회사 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손보 겸영회사의 수는 각각 16개, 51개, 9개이며, 재보험회사 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손보 겸영회사의 수는 각각 4개, 26개, 9개임
- 홍콩·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캡티브 보험시장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캡티브 보험회사 수는 총 90개로 생명보험회사 1개, 손해보험회사 82개, 생·손보 겸영회사 7개임
 -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서 보험산업 중 상당 부분이 역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보험회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방적 금융구조와 규제 환경은 다국적 기업의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

〈표 8〉 싱가포르 보험회사 현황(2025년)

(단위: 개)

구분	원보험업			재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손보 겸영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16	51	9	4	26	9
캡티브 보험회사	1	82	7	-	-	-

자료: MAS(<https://eservices.mas.gov.sg/fid/institution?sector=Insurance>)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3년 기준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5% 하락한 457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의 연도별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29.1%), 2021년(21.1%)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다소 둔화된 모습이었으며, 2022년(-1.0%)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된 이후 2023년(-10.5%)에는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및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2023년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165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싱가포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보험료	33,006 (-16.0)	42,610 (29.1)	51,618 (21.1)	51,123 (-1.0)	45,737 (-10.5)
총자산	255,876 (22.2)	300,164 (17.3)	318,588 (6.1)	297,221 (-6.7)	316,526 (6.5)

주: ()는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유계약 수입보험료 기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 각각 1, 2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싱가포르 생명보험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상해·건강보험 등으로 분류되며 2023년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125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의 45.1%를 차지함
 -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상해·건강보험 등, 정기보험 순으로 이어짐
- 2021년까지는 양로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함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17.0%,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싱가포르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종신보험	6,833 (41.3)	7,477 (33.7)	8,847 (37.1)	10,353 (40.4)	12,507 (45.1)
정기보험	1,094 (6.6)	1,211 (5.5)	1,295 (5.4)	1,430 (5.6)	1,568 (5.7)
양로보험	8,622 (52.1)	9,043 (40.8)	9,260 (38.8)	9,116 (35.6)	8,538 (30.8)
상해·건강보험 등	4,087 (19.8)	4,455 (20.1)	4,441 (18.6)	4,715 (18.4)	5,122 (18.5)
총 수입보험료	16,553	22,186	23,843	25,614	27,735

주: 1) 개인 생명보험의 보유계약 기준으로 작성됨

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일시납 보험상품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는 정기납 상품의 경우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납 상품은 2022년 들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8년 대비 64.6% 성장한 234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싱가포르 국민연금제도인 중앙적립기금(CPF)을 통한 일시납 보험 가입이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및 주변 아시아 부유층이 상속·자산승계 목적으로 일시납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표 11〉 싱가포르 생명보험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SGD)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시납	14,215	12,485	18,364	25,842	23,399
정기납	3,536	4,150	3,529	4,147	4,163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생명보험시장의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1.9%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 회사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국내 보험회사(3개)와 외국 보험회사(7개)가 주도하고 있음

-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The Great Eastern Life가 27.6%로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Prudential Assurance(17.7%), Manulife(16.1%), AIA Singapore(13.2%), Singapore Life(7.3%)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상위 5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8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3개사로 추려 합산한 경우에도 생명보험시장의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3개의 국내 보험회사는 The Great Eastern Life(1위), Singapore Life(5위), Income Insurance(6위)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2.1%임
- 상위 10개의 보험회사에는 국내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영국, 캐나다,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의 보험회사가 진입해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54.0%로 나타남
- 이 중 영국의 Prudential Assurance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7.5%로 상위 3개사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임

〈표 12〉 싱가포르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SGD, %)

순위	회사명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The Great Eastern Life(싱가포르)	14,586	28.3	14,102	27.6	-3.3
2	Prudential Assurance(영국)	8,416	16.3	9,051	17.7	7.5
3	Manulife(캐나다)	8,636	16.7	8,224	16.1	-4.8
4	AIA(홍콩)	6,517	12.6	6,750	13.2	3.6
5	Singapore Life(싱가포르)	3,906	7.6	3,751	7.3	-4.0
6	Income Insurance(싱가포르)	3,999	7.7	3,682	7.2	-7.9
7	Etiqa Insurance(말레이시아)	1,382	2.7	1,063	2.1	-23.1
8	HSBC Life(영국)	906	1.8	944	1.8	4.2
9	Utmost International(영국)	288	0.6	796	1.6	176.8
10	Tokio Marine Life(일본)	813	1.6	775	1.5	-4.7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95.8		96.1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81.5		81.9		-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은 방카슈랑스, 금융자문업자, 전속 설계사가 주요 판매채널로 보험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32.8%로 가장 크며, 그 뒤로 금융자문업자(31.7%), 전속 설계사(31.3%), 온라인(4.4%) 순임
 - 방카슈랑스는 판매 건수 기준으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고액 상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은 2019년 24.7%에서 2023년 31.7%로 증가하며 전속 설계사의 비중을 넘어가기 시작함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이 고객 중심 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⁸⁾
- 온라인(Direct)은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하여 2020년 8.1%로 증가한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부분 소액 계약으로 이루어져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3〉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9~2023년)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카슈랑스	36.0	29.2	32.1	31.6	32.8
금융자문업자	24.7	26.7	28.8	27.9	31.7
전속 설계사	34.0	36.0	33.1	34.7	31.3
온라인(Direct)	5.2	8.1	6.0	5.7	4.4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을 살펴보면 채권과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이 다소 감소하고 주식 및 기타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운용자산 중 채권이 1,557억 싱가포르 달러로 49.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주식이 1,210억 싱가포르 달러로 38.2%의 비중을 기록함
 - 채권과 주식은 총 운용자산의 87.4%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⁸⁾ 2013년 MAS는 싱가포르 금융자문산업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FAIR(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판매 수수료 상한제, 상담 품질·고객 보호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 도입 등의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이후 보험회사들은 금융자문업자 채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MAS는 금융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노력함. 다만 일부 보험회사 소속 금융자문업자에 대해 여전히 판매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꾸준히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감소 추세가 이어졌으며 2023년 들어 40%대로 감소함
- 반면 주식은 다소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9년 대비 29.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 수익원 확보 및 주식시장 회복세 효과와 맞물려 점차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금 및 예치금과 기타자산의 경우 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9년 대비 절대적인 금액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총 운용자산은 2019년 2,559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3,165억 싱가포르 달러로, 5년간 약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싱가포르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5,428 (2.1)	8,726 (2.9)	7,541 (2.4)	9,968 (3.4)	7,969 (2.5)
주식	93,463 (36.5)	104,952 (35.0)	118,739 (37.3)	104,742 (35.2)	121,043 (38.2)
채권	133,953 (52.4)	157,585 (52.5)	163,783 (51.4)	151,900 (51.1)	155,683 (49.2)
대출	3,735 (1.5)	3,637 (1.2)	3,337 (1.0)	3,240 (1.1)	3,288 (1.0)
부동산	3,683 (1.4)	3,633 (1.2)	3,809 (1.2)	4,014 (1.4)	4,024 (1.3)
기타	15,613 (6.1)	21,631 (7.2)	21,380 (6.7)	23,358 (7.9)	24,519 (7.7)
총 운용자산	255,876	300,164	318,588	297,221	316,52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 캡티브 보험시장이 발달한 만큼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역내 수입보험료는 56억, 역외 수입보험료는 174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싱가포르 역내 보험기금(Singapore Insurance Fund; SIF), 역외 보험기금(Offshore Insurance Fund; OIF)으로 구분되며, 특히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재보험·캡티브 보험의 발달로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기준 역내 시장 수입보험료는 56억 싱가포르 달러, 역외 시장 수입보험료는 174억 싱가포르 달러로 역외 시장이 3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외 시장에서는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94억 싱가포르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내 시장의 연도별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2년 1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함
 - 2023년 들어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역외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로 2020년 하락세를 보인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역내 128억 싱가포르 달러, 역외 418억 싱가포르 달러로 총자산의 규모는 두 시장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표 15〉 싱가포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역내	수입보험료	4,355.2 (6.7)	4,364.6 (0.2)	4,711.8 (8.0)	5,189.2 (10.1)	5,569.1 (7.3)	
	총자산	11,244.0 (3.3)	11,512.7 (2.4)	12,125.3 (5.3)	12,370.5 (2.0)	12,807.7 (3.5)	
역외	수입보험료	보험회사	3,854.4	4,234.0	4,740.4	5,426.8	6,128.2
		재보험회사	9,315.4	7,329.6	8,611.9	9,070.2	9,433.4
		캡티브	1,333.7	1,413.8	1,750.7	1,964.0	1,830.7
	총수입보험료	14,503.5 (13.8)	12,977.4 (-10.5)	15,103.0 (16.4)	16,461.0 (9.0)	17,392.3 (5.7)	
	총자산	29,717.8 (11.1)	30,781.9 (3.6)	37,151.9 (20.7)	39,227.5 (5.6)	41,797.6 (6.6)	

주: ()는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기준 역대 손해보험시장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11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1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재물보험(15.4%), 건강보험(15.2%)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보험은 최대 종목이지만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2.3% 하락했으며, 그 외 다른 종목은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은 2019년 5.9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8.5억 싱가포르 달러로 4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재물보험은 부동산·인프라 투자 확대, 자연재해·기후리스크 보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6.0억에서 2023년 8.6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함
 -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일반책임보험은 2019년 대비 2023년 55% 성장하여 4.9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의 활동 다변화, 규제 및 소송에 따른 위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함

〈표 16〉 싱가포르 역대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동차	1,117 (25.6)	1,127 (25.8)	1,159 (24.6)	1,067 (20.6)	1,091 (19.6)
재물	603 (13.9)	667 (15.3)	781 (16.6)	841 (16.2)	860 (15.4)
건강	586 (13.5)	592 (13.6)	653 (13.9)	774 (14.9)	845 (15.2)
해상, 항공 및 교통	423 (9.7)	448 (10.3)	459 (9.7)	533 (10.3)	569 (10.2)
일반책임	317 (7.3)	365 (8.4)	413 (8.8)	462 (8.9)	499 (9.0)
배상책임	372 (8.5)	389 (8.9)	408 (8.7)	431 (8.3)	477 (8.6)
상해	383 (8.8)	237 (5.4)	223 (4.7)	388 (7.5)	453 (8.1)
보증 및 신용	270 (6.2)	229 (5.2)	227 (4.8)	269 (5.2)	312 (5.6)
기술	108 (2.5)	137 (3.1)	136 (2.9)	148 (2.9)	175 (3.2)
기타	176 (4.0)	174 (4.0)	253 (5.4)	273 (5.3)	287 (5.2)
총 수입보험료	4,355	4,365	4,712	5,187	5,569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기준 역외 손해보험시장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재물보험, 책임보험 및 기타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재물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7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5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역외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대규모 손실위험을 다루고 있어 재물보험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 및 기타는 3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해상, 항공 및 교통(11.1%), 자동차(8.8%), 기술(7.2%) 순임
 - 특히 책임보험 및 기타의 비중은 2020년에 전년 대비 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17〉 싱가포르 역외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물	8,273.5 (57.0)	6,638.8 (51.2)	8,116.7 (53.7)	9,003.9 (54.7)	9,672.9 (55.6)
책임보험 및 기타	2,126.1 (14.7)	2,297.5 (17.7)	2,751.7 (18.2)	2,920.5 (17.7)	2,991.9 (17.2)
해상, 항공 및 교통	1,586.4 (10.9)	1,487.5 (11.5)	1,646.7 (10.9)	1,887.6 (11.5)	1,937.9 (11.1)
자동차	1,651.3 (11.4)	1,763.4 (13.6)	1,520.8 (10.1)	1,498.6 (9.1)	1,538.4 (8.8)
기술	866.2 (6.0)	790.2 (6.1)	1,067.1 (7.1)	1,150.5 (7.0)	1,251.1 (7.2)
총 수입보험료	14,503.5	12,977.4	15,103.0	16,461.1	17,392.2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4년 손해보험시장의 상위 10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4.2%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위인 국내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 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음

- 2024년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NTUC Income Insurance가 5.3억 싱가포르 달러로 8.8%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뒤로는 Cigna Europe Insurance(7.6%), AIG Asia Pacific Insurance(6.9%), Chubb Insurance(5.8%), MS First Capital Insurance(5.3%) 순임

- 상위 5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4.4%로 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위 5위 이하의 회사들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TUC Income Insurance를 제외하면 9개 회사 모두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외국 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음
 - NTUC Income Insurance는 2023년 대비 6.6%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유율 측면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임
 - 4개의 미국계 대형 보험회사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점유율은 다소 정체되거나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일본계 보험회사의 경우 3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MS First Capital Insurance와 Tokio Marine Insurance은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독일계 보험회사인 Allianz는 56.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위 10위권 회사 중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함

〈표 18〉 싱가포르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SGD,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4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NTUC Income Insurance(싱가포르)	492	8.8	525	8.8	6.6
2	Cigna Europe Insurance(미국)	433	7.8	453	7.6	4.7
3	AIG Asia Pacific Insurance(미국)	398	7.1	409	6.9	2.9
4	Chubb Insurance(미국)	332	6.0	345	5.8	4.0
5	MS First Capital Insurance(일본)	278	5.0	315	5.3	13.6
6	MSIG Insurance(일본)	292	5.2	287	4.8	-1.6
7	Allianz(독일)	166	3.0	259	4.3	56.3
8	Liberty Insurance(미국)	207	3.7	224	3.8	8.2
9	Tokio Marine Insurance(일본)	180	3.2	208	3.5	15.3
10	QBE Insurance(호주)	187	3.4	198	3.3	6.0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53.2		54.2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34.7		34.4		-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은 보험중개인과 설계사가 주요 판매채널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중개인은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이며, 특히 다국적 기업 및 대형 계약은 중개인이 독점하고 있음
- 설계사의 경우 판매채널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의 설계사 수는 2021년 4,105명에서 2023년 3,777명으로 감소함
- 온라인(Direct)은 10% 초반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1년 12%에서 2023년 14%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이나 여행보험과 같은 저가형 보험에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표 19〉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1~2023년)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험중개인	50	51	51
설계사	32	30	28
온라인(Direct)	12	13	14
방카슈랑스	6	6	7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역내·외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은 2023년 기준 각각 128억, 418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내 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운용자산 중 채권이 67억 싱가포르 달러(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 및 예치금이 30억 싱가포르 달러로 23.4%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기타(16.0%), 주식(5.7%), 부동산(2.5%), 대출(0.1%) 순임
 - 채무증권은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주식과 부동산은 전년 대비 각각 0.5%p, 0.7%p 하락했으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역외 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운용자산 중 채권이 143억 싱가포르 달러로 3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104억 싱가포르 달러로 24.8%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주식(15.7%), 현금 및 예치금(13.5%), 대출(11.7%) 순임

- 기타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재보험 미수금·예치금·파생상품 등 전통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이 많기 때문임

〈표 20〉 싱가포르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22~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역내		역외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2,911.1 (23.5)	2,990.8 (23.4)	5,457.4 (13.9)	5,645.1 (13.5)
주식	767.5 (6.2)	726.9 (5.7)	7,516.1 (19.2)	6,563.9 (15.7)
채권	6,338.9 (51.2)	6,704.8 (52.3)	12,969.4 (33.1)	14,332.1 (34.3)
대출	7.2 (0.1)	12.4 (0.1)	3,728.0 (9.5)	4,889.3 (11.7)
부동산	398.3 (3.2)	326.2 (2.5)	15.4 (0.0)	13.0 (0.0)
기타	1,947.5 (15.7)	2,046.6 (16.0)	9,541.2 (24.3)	10,354.2 (24.8)
합	12,370.5	12,807.7	39,227.5	41,797.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IV

시사점

-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 고품질 금융·디지털 인프라, 외국 자본의 유입이 쉬운 개방적 규제 환경 등이 결합되어 아시아의 금융·교역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글로벌 (재)보험, 오프쇼어, 캡티브가 두터운 지역 허브형 시장 구조를 형성함
 - 금융 허브로서의 신뢰도,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22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을 시행하여 자금세탁 등의 '허브 리스크'를 업계 공동 대응으로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지속 개정하고 있음
 -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율 범위를 넓혀, 해외 고객만 상대하는 역외 사업자까지 라이선스·거버넌스·AML/CFT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암호자산 등 신종 금융 리스크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Green Plan 2030, 환경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전환 계획 등 친환경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보완하며 보험시장에 ESG 리스크관리와 녹색상품 확산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
 - 이사회 책임과 언더라이팅 및 투자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고탄소·수자원 의존 업종의 경우 언더라이팅 기준이 매우 높아져 많은 보험회사가 석탄 관련 보험계약 인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음
 - Green Plan의 EV 확산 로드맵의 영향으로 충전기 손해, 감전 시 치료비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EV 전용 담보가 다양해지고 있음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시장이 69.6%, 손해보험시장이 30.4%를 차지해 생명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 싱가포르는 높은 소득 수준,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및 개방적 규제 환경 등으로 국내외 부유층의 자산관리·상속 설계 수요가 커 장기 저축성, 보장성 상품 중심의 생명보험 수요가 큼
- 한편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재보험의 발달로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는 재보험이 발달하여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역외 시장 수입보험료는 174억 싱가포르 달러로 역대 시장보다 3배 이상 큼
 - 전체 손해보험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회복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헬스케어·자연재해 위험 보장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자약력

강윤지 연구원 / 경제학 석사

김가현 연구원 / 응용경제학 석사

2025 해외보험리포트

싱가포르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